

#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 연구의 테두리 내에서, 유럽공동체의 여러 현안 중 특히 그 구성 국가들 간의 문화적 “조화”가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를 유럽공동체의 외국어 교육 정책, 특히 외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950년 5월 9일 Robert Schuman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유럽 국가들 간의 대립과 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려는 목적 아래 일차적으로 극히 제한된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연대감의 형성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된 유럽공동체의 구상은 특히 경제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꾸준히 그 구체적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동체의 형성은 각 회원국들 간의 이질성을 어떻게 다양성의 조화라는 차원으로 끌어 올려느냐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하겠다. 그럴 때 주로 각 회원국들 간의 물질적 차이를 “제지, 극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제 정책 못지 않게,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휴머니즘, 다양성, 보편성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정신을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공동체 시민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육 정책의 목적인 바, 유럽공동체 이사회는 이를 “배타주의와의 싸움,” “다문화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미래 공동체 시민의 양성,” “문화 교류적 교류” 등으로 일컬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럽만 해도 10여개 언어를 사용하는 23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으며<sup>(1)</sup>, 이들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유럽공동체가 서로 다른 언어들에 대해 어떻게 그 차이를 인정하면서 유럽의 통합을 꾀하는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정보와 생각을 교환하고 사고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형성의 전제 조건인 까닭에 외국어 정책은 유럽공동체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유럽 정신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의 도구가 되는 공

\* 본 연구는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유럽공동체의 주요 언어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단위: 백만)

|            |              |           |           |
|------------|--------------|-----------|-----------|
| 덴마크어 : 5   | 네덜란드어 : 20   | 영 어 : 60  | 프랑스어 : 58 |
| 독 일 어 : 78 | 그 리 스 어 : 11 | 이태리어 : 60 | 플투갈어 : 10 |

Georg-Michael Luyken, 1991 *Overcoming Language Barriers in Television*(Manchester: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a), p. 4. 박명진 외, “통합유럽을 위한 프로그램산업 : 언어와 문화적 차이의 극복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부설 지역융합연구소 제 1 회 지역연구 학술 발표회자료) p. 73을 참조.

동체 내 외국어의 상호 습득이라는 과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유럽공동체의 성패” 혹은 “공동체 정책의 아킬레스 건” 이라고 표현될 정도이다.

사실 회원국들의 교육 제도는 워낙 다양하고 역사 및 문화의 유산인 이러한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움직임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원국들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서로의 특성과 정책을 비교하고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각국의 외국어 교육의 혁신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결과 1976년 유럽의회와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정책의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RYDICE’라는 정보 교환 체계를 설립했다. 그후 회원국 대표들은 1982년 3월 29일 ‘유럽기금’(European Foundation)의 설립에 합의하였고 1983년 6월 19일에는 유럽 의회가 유럽의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언어 학습의 조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나를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교육정책의 공동보조 속에서 우리가 유럽공동체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 및 실태를 살펴보는 작업은 그것이 경제 통합 측면의 연구와 균형을 이룰 때 유럽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를 가능케해주어 우리와 유럽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공동체에 대응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언어장벽같은 난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이들 국가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외국어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고 교사교육, 평가 등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방향 제시 및 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 독일의 외국어 교육

신 태 호

(독어독문학과 교수)

## I. 머릿 말

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결속까지를 목표로 하는 유럽공동체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은 20개 이상의 공식언어 (Amtssprache)<sup>1)</sup>가 통용되고 있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차로 한시간 거리만 가도 국경선과 동시에 언어의 경계선에 도달하게 된다. 언어의 경계선은 국가나 사회단체나 개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벽이다. 유럽공동체만 하더라도 각기 공식언어를 가진 12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공동체에 속한 나라들 중에는 국경 검문소조차도 폐쇄하기에 이르러 지리적 경계선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가장 큰 장애물로 언어의 경계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생긴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중 어느나라도 타국의 언어가 공동체의 유일한 공식언어로 채택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각료회의에서 정치인 못지 않게 많은 수의 통역관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어의 기능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정치적 모임에서의 의견교환, 학술회의나 심포지움에서의 토론 및 개인간의 의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통역관을 통하여, 두번째<sup>2)</sup>와 세번째의 경우는 오늘날 거의 국제어 (Weltsprache)가 되다시피한 영어로서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 상호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하여 상대국을 그 내부에서부터 알고자 할 때는 그 나라 언어를 통하여 그 문화와 사고방식을 터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의 선택은 목적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서는 되도록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며, 어떤 나라를 보다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유럽공동체의 경우 회원국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순

1) 여기서는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2) 학술회의와 심포지움의 토론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견도 있다.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Munchen 1988, S. 309.

한 소통언어(Verkehrssprache)보다 서로 상대 회원국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더우기 유럽공동체에 속한 나라들은 그들의 유럽정책에서 공동체 내 각 언어는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sup>3)</sup> 실제로 모든 언어가 각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이상, 각 언어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1954년에 체결된 유럽문화협정을 위시하여 유럽평의회(Europarat)의 결의들, 유럽공동체의 외교각서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1975년 헬싱키 결의서 역시 유럽의 어떤 언어도 다른 언어들에 대해 주도적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sup>4)</sup> 비록 좁은 지역이나 나라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도 위와 같은 전제와 역내 국가의 언어라는 점에서 배울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는 유럽에 산재하며 떠돌이 노동을 하는 외국 노동자들의 언어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어에 대한 정책 및 실제 교육은 같은 유럽공동체에 속한 나라일지라도 각국의 전통과 지리적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외국어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또 유럽공동체에 속한 국가의 외국어 정책이 역내 국가들의 언어에만 국한될 수는 없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국제관계를 감안하여 공동체 밖 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 II. 중등교육과정의 외국어 교육

어느 나라나 언어정책에 따른 외국어 교육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행해진다. 독일에서는 중등교육과정부터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는데, 이 과정은 국민학교 초등과정(Grundschule) 4년을 마친 후 5년째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은 또 하급과정(중등교육과정 I)과 상급과정(중등교육과정 II)으로 구분된다. 하급과정에는 국민학교본과(Hauptschule)<sup>5)</sup>, 실업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또는 종합학교(Gesamtschule)<sup>6)</sup> 하급반이 해당되며, 상급과정에는 김나지움 또는 종합학교 상급반 및 각종 직업교육과정이 있다. 이러한 각종 학교와 각 과정은 그 교육목표에 따라 외국어의 선택과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또 독일에서는 주(Land)와 지역에 따라 외국어의 선택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1964년에 독일(당시 서독)은 교육의 표준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지사들이 함부르크 협정(das Hamburger Abkommen der Ministerpräsidenten der deutschen Bundesländer)을

3) Vgl. H. Haarmann *Grundfragen der Sprachregelung in den 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Hamburg 1973(=Schriftenreihe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11).

4)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11.

5) 국민학교 초급과정을 마치고 Realschule나 Gymnasium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직업교육과정. 5학년부 9학년까지.

6)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학교.

체결하고, 1971년에는 그 수정안을 나왔다.<sup>7)</sup> 이 협정에 의하면 외국어는 일반 교육구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5학년부<sup>8)</sup> 모든 중등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7학년 부터는 각 학교의 유형과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수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독일 전체 중등학교 외국어교육의 기본골격을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sup>9)</sup>

1. 외국어교육은 국민학교 초등과정 4년이 끝난 다음 국민학교 본과, 실업학교 또는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과도기부터 시작된다. 종합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학년에 외국어교육이 실시된다.
2. 학교 교과목 프로그램에 명시된 외국어는 단순한 서열에 따라서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 3외국어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3. 외국어 수업시간은 다른 과목과 함께 수업시간표에 분산되어 있다. 또 외국어 수업은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과(Lektion) 단위로 구성되어 매시간마다 학습해야 할 일정한 분량이 있다.
4. 고전어로서의 라틴어와 희랍어도 영어나 불어와 똑같은 의미의 외국어로 정해져 있다.
5. 영어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제 1외국어다. 특히 1964년 체결된 함부르크 협정에 의하면 국민학교 본과에서는 이것이 분명한 원칙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1971년 수정된 협정에서는 불어나 라틴어를 제 1외국어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학교는 거의 없다.

독일의 문교정책은 각 주마다 독립되어 있으나 학교제도만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다섯가지 항목도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원칙은 모든 주에 다 해당된다. 모든 주에 해당되는 외국어 교육의 대원칙을 학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본과나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종합학교에서 마치려는 학생은 5학년부<sup>8)</sup> 외국어 하나만을 배운다. 실업학교나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종합학교에서 마치려고 하는 학생은 하나의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택해야 하고, 제 2외국어를 택할 수 있다. 김나지움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정을 종합학교에서 마치고 대학입자<sup>9)</sup> (Abitur)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2개의 외국어를 택할 수 있다.

다음은 독일 중등교육과정(Sekundarstufe)의 학교 유형별 교과과정에 나타난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 유형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른 학과목도 참조적으로 열거하였다. 독일의 모든 주의 교육과정을 다 예로 들 수는 없기 때문에, Nordrhein-Westfalen 주의 중등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고,<sup>10)</sup> 편의상 중등교육과정 I 과 중등교육과

7)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14.

8) 독일에서는 모든 학년을 국민학교 1학년부<sup>8)</sup> 통산하여 부름.

9)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14.

10) Vgl. Kultusministerium Nordrhein-Westfalen (Hg.): Die Schulformen in der Sekundarstufe I, Bochum 1990.

정 II 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중등교육과정 I 에는 국민학교본과, 실업학교, 김나지움 10학년까지, 또 이에 상응하는 종합학교의 해당과정이 속한다. 중등교육과정 I 의 학교 유형별 학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학교 본과 : 독어, 사회과학(역사/정치, 지리), 수학, 자연과학(생물, 화학, 물리), 영어, 실업, 음악/미술/직물디자인, 종교, 체육
2. 실업학교 : 독어, 사회과학(역사, 정치, 지리), 수학, 자연과학(생물, 화학, 물리), 영어, 음악/미술/직물디자인, 종교, 체육, 제 2 외국어
3. 김나지움 하급반 : 독어, 사회과학(역사/정치, 지리), 수학, 자연과학(생물, 화학, 물리),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음악/미술/직물디자인, 종교, 체육

위에 열거한 학교유형별 학과목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어다. 다른 학과목들은 모든 학교가 대체로 동일한 반면 외국어만은 차이가 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유형별 특성이 외국어의 가지 수와 종류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국민학교 4학년을 마치고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조기에 직업을 택하게 될 학생들이 진학하는 국민학교 본과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나 불어 중 하나의 외국어만 택하면 되고, 다음 수준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실업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하고 제 2 외국어 하나를 더 택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학교에서는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의 말을 제 2 외국어로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대학 진학을 목표로 다니는 김나지움은 제 1 외국어와 제 2 외국어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은 라틴어, 영어, 불어 중 하나를 제 1 외국어로 택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다른 하나를 제 2 외국어로 택해야 한다. 또 제 1 외국어는 5학년부턴, 제 2 외국어는 7학년부턴 개설한다. 9학년, 10학년에서는 학생들의 중요 관심의 방향을 시험하고 김나지움 상급반(Gymnasiale Oberstufe)에서 적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적합한 필수선택과목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 과목은 일반적으로 제 3 외국어다. 제 3 외국어의 개설은 학교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회랍어, 라틴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노어, 네덜란드어를 개설하여 학생들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11학년부턴 시작되는 중등교육과정 II (Sekundarstufe II) 에는 김나지움 상급반과 직업교육 과정이 있다. 직업교육과정에는 외국어 과목의 개설이 많지 않고, 외국어 과목이 집중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김나지움 상급반이다. 김나지움 상급반에서 13학년을 마치고 Abitur를 한 학생은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die allgemeine Hochschulreife)을 획득하고, 12학년까지만 다니거나 13학년에서 Abitur를 하지 못한 학생은 1년동안의 실습을 거쳐서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Fachhochschulreife)을 얻게 된다.

그러면 Nordrhein-Westfalen주에 있는 김나지움 상급반의 교과과정을 토대로 하여 독일 외국어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sup>11)</sup> 이 주의 김나지움 상급반은 어문·예술분야, 사

회과학분야, 수학·자연과학 분야 등 3개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어문·예술분야의 전체 학과목은 독어, 불어, 영어, 이탈리아어, 느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라틴어, 회랍어, 히브리어, 그리고 음악, 미술이다. 이중 외국어는 11학년 첫 학기에 중등교육과정 I에서 시작한다.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 또는 제 3외국어 중에서 하나를 필수과목으로 계속 수강해야 하고, 선택과목으로서 제 2외국어를 하나 더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특히 중등교육과정 I에서 제 2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은 일반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제 2외국어의 선택이 필수이다. 그리고 김나지움의 유형에 따라서는 9학년년부터 시작한 제 3외국어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외국어교육은 경우에 따라 11학년 말에 끝나기도 하고, 13학년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Nordrhein-Westfalen 주의 교육과정중 외국어교육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외국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주 중등교육과정의 학과별, 과목별 주당 시간수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Nordrhein-Westfalen주 중등교육과정 I의 학교별 과목별 주당 시간수<sup>12)</sup>

| 학 과 목          | 5 학 년 |    |       | 6 학 년 |       |    | 7 학 년 |    |       | 8 학 년 |       |    | 9 학 년  |     |     | 10 학 년 |   |   | 합 계 |    |    |  |
|----------------|-------|----|-------|-------|-------|----|-------|----|-------|-------|-------|----|--------|-----|-----|--------|---|---|-----|----|----|--|
|                | H     | R  | G     | H     | R     | G  | H     | R  | G     | H     | R     | G  | H      | R   | G   | H      | R | G | H   | R  | G  |  |
| 1. 필수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1.1. 독어        | 5     | 4  | 4     | 5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3   | 4      | 4 | 3 | 26  | 24 | 22 |  |
| 1.2. 사회과학      | 3     | 3  | 3     | 4     | 4     | 4  | 3     | 4  | 4     | 3     | 4     | 4  | 4      | 4   | 4   | 3      | 4 | 4 | 20  | 23 | 23 |  |
| 1.3. 수학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3   | 4      | 4 | 3 | 24  | 24 | 22 |  |
| 1.4. 자연과학      | 4     | 4  | 4     | 3     | 3     | 3  | 3     | 4  | 3     | 3     | 4     | 3  | 2      | 4   | 5   | 4      | 4 | 5 | 19  | 23 | 23 |  |
| 1.5. 외국어       | 5     | 5  | 5     | 5     | 5     | 5  | 4     | 4  | 8     | 4     | 4     | 8  | 3      | 4   | 6   | 3      | 4 | 6 | 24  | 26 | 38 |  |
| 1.6. 실업(기술/가정) | —     | —  | —     | —     | —     | —  | 3     | —  | —     | 3     | —     | —  | 2      | —   | —   | 4      | — | — | 12  | —  | —  |  |
| 1.7. 음악/미술/직물다 | 3     | 4  | 4     | 3     | 4     | 4  | 3     | 3  | 3     | 3     | 3     | 3  | 2      | 4   | 2   | 2      | 4 | 2 | 16  | 22 | 18 |  |
| 1.8. 종교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2  | 12 | 12 |  |
| 1.9. 체육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18  | 18 | 18 |  |
| 2. 필수선택        | —     | —  | —     | —     | —     | —  | 2     | 3  | —     | 2     | 3     | —  | 3      | 3   | 4   | 3      | 3 | 4 | 10  | 12 | 8  |  |
| 3. 진로지도수업      | 1     | 1  | 1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2  | 2  |  |
| 4. 보강수업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3      | — | — | 6   | —  | —  |  |
| 합 계            | 30    | 30 | 30/30 | 30    | 30/31 | 31 | 31/31 | 31 | 31/32 | 32    | 32/32 | 32 | 32/186 | 186 | 186 |        |   |   |     |    |    |  |

\*\*H =Hauptschule, R.=Realschule, G.=Gymnasium

위 도표를 보면 학교별 외국어의 주당 시간수는 5학년과 6학년에는 동일하며 7학년부터는 김나지움의 외국어 시간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배로 증가된다. 또 외국어의 주당 시간수가

11) Vgl. Kultusministerium Nordrhein-Westfalen (Hg.): *Die Schulformen in der Sekundarstufe II*, Bochum 1989.

12) Chr. Führ: *Schulen und Ho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ter Nationes Bonn 1988, S. 233.

다른 과목의 주당 시간 수에 비해 단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시간수의 총계는 실업학교의 경우 26시간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가장 많고, 김나지움에서는 38시간으로 두번째로 많은 자연과학에 비해 15시간이나 더 많다. 그만큼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학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980년과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서독 전체의 학교별 외국어 수강자수와 그 백분율을 보던 다음과 같다.

1. 1980, 1983~1986년도 서독의 학교별 외국어 수강자 —<sup>13)</sup>

|              | 1980      | 1983      | 1984      | 1985      | 1986      |
|--------------|-----------|-----------|-----------|-----------|-----------|
| Grundschule  |           |           |           |           |           |
| 영 어          | 27,341    | 17,024    | 15,337    | 15,024    | 14,130    |
| 불 어          | 3,848     | 2,553     | 3,889     | 4,527     | 4,375     |
| Hauptschule  |           |           |           |           |           |
| 영 어          | 2,145,164 | 1,803,789 | 1,632,598 | 1,500,698 | 1,363,860 |
| 불 어          | 41,959    | 35,767    | 39,708    | 42,544    | 47,459    |
| Realschule   |           |           |           |           |           |
| 영 어          | 1,340,406 | 1,206,430 | 1,124,762 | 1,042,189 | 967,952   |
| 불 어          | 434,180   | 352,363   | 330,731   | 302,253   | 280,285   |
| 스페인어         | —         | 1,819     | 1,665     | 1,806     | 1,694     |
| Gymnasium    |           |           |           |           |           |
| 영 어          | 1,927,547 | 1,779,763 | 1,678,503 | 1,582,743 | 1,501,763 |
| 불어스페         | 933,057   | 886,355   | 835,051   | 783,620   | 734,659   |
| 인 어          | 20,813    | 26,911    | 26,958    | 26,933    | 28,141    |
| 노 어          | 19,241    | 18,268    | 17,931    | 17,914    | 17,870    |
| 이태리어         | 7,080     | 7,972     | 9,300     | 12,183    | 12,552    |
| 기타 외국어       | 3,398     | 7,592     | 6,519     | 4,802     | 4,933     |
| 라틴어          | 821,912   | 756,103   | 712,443   | 660,371   | 613,239   |
| Gesamtschule |           |           |           |           |           |
| 영 어          | 212,498   | 216,717   | 214,856   | 211,403   | 230,133   |
| 불 어          | 74,312    | 71,892    | 71,802    | 70,686    | 71,412    |
| 스페인어         | 2,578     | 3,885     | 3,997     | 3,809     | 4,350     |
| 노 어          | 6,164     | 7,676     | 8,562     | 9,394     | 9,741     |
| 이태리어         | —         | 315       | 462       | 599       | 658       |
| 기타 외국어       | 1,443     | 1,218     | 1,391     | 1,880     | 1,955     |
| 라틴어          | 18,103    | 16,540    | 15,778    | 15,771    | 16,082    |

13) Ebd., S. 217.



II. 1980, 1983~1986년도 서독의 학교별 외국어 수강자 수의 백분율<sup>15)</sup>

|                     | 1980 | 1983 | 1984 | 1985 | 1986 |
|---------------------|------|------|------|------|------|
| <b>Grundschule</b>  |      |      |      |      |      |
| 영 어                 | 1.0  | 0.7  | 0.7  | 0.7  | 0.6  |
| 불 어                 | 0.1  | 0.1  | 0.2  | 0.2  | 0.2  |
| <b>Hauptschule</b>  |      |      |      |      |      |
| 영 어                 | 94.4 | 95.2 | 95.2 | 95.4 | 93.8 |
| 불 어                 | 1.8  | 1.9  | 2.3  | 2.7  | 3.3  |
| <b>Realschule</b>   |      |      |      |      |      |
| 영 어                 | 99.2 | 99.3 | 99.3 | 99.3 | 99.2 |
| 불 어                 | 32.1 | 29.0 | 29.2 | 28.8 | 28.7 |
| 스페인어                | —    | 0.1  | 0.2  | 0.2  | 0.2  |
| <b>Gymnasium</b>    |      |      |      |      |      |
| 영 어                 | 91.0 | 90.8 | 90.6 | 90.4 | 90.7 |
| 불 어                 | 44.0 | 45.2 | 45.1 | 44.8 | 44.4 |
| 스페인어                | 1.0  | 1.4  | 1.5  | 1.5  | 1.7  |
| 노 어                 | 0.9  | 0.9  | 1.0  | 1.0  | 1.1  |
| 이태리어                | 0.3  | 0.4  | 0.5  | 0.7  | 0.8  |
| 기타 외국어              | 0.2  | 0.4  | 0.4  | 0.4  | 0.3  |
| 라틴어                 | 38.8 | 38.6 | 38.5 | 37.7 | 37.0 |
| <b>Gesamtschule</b> |      |      |      |      |      |
| 영 어                 | 96.0 | 96.4 | 97.3 | 97.2 | 96.7 |
| 불 어                 | 33.7 | 32.0 | 32.5 | 32.5 | 30.4 |
| 스페인어                | 1.2  | 1.7  | 1.8  | 1.8  | 1.8  |
| 노 어                 | 2.8  | 3.4  | 3.9  | 4.3  | 4.1  |
| 이태리어                | —    | 0.1  | 0.2  | 0.3  | 0.3  |
| 기타 외국어              | 0.7  | 0.5  | 0.6  | 0.9  | 0.8  |
| 라틴어                 | 8.2  | 7.4  | 7.1  | 7.2  | 6.8  |

위 통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극히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국민학교 초급과정(Grundschule)에서도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다.<sup>14)</sup> 외국어 조기교육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나, 만약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면 그 시기는 3학년이고 교육방법은 유희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sup>16)</sup> 그리고 또 위 통계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국민학교 초급과정과 김나지움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등교육과정 II에 해당하는 직업교육과정의 외국어교육은 학교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

14) Ebd., S. 218.

15) Vgl. ebd., S. 80

16)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18.

다. 그러나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각각 적어도 2개 이상 개설되어 그중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직업교육과정에서는 고전어인 회랍어와 라틴어는 제외되어 있다. 이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제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학교(Berufsschule)에서는 특정직업을 위한 반을 편성하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을 개설하여 학생들은 이중 하나를 선택하며, 주당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이다.<sup>17)</sup>

2년제 고등직업전문학교(die höhere Berufsfachschule)에서는 외국어가 제 1 외국어와 제 2 외국어로 나뉘며, 제 1 외국어에는 영어나 불어를, 제 2 외국어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노어를 개설하여 학생들은 각각 이중 하나씩을 택한다. 그리고 주당 시간수도 직업학교보다 대폭 증가되어, 첫째 학년에는 제 1 외국어가 주당 3시간에서 8시간, 둘째 학년에는 주당 1시간에서 6시간이고, 제 2 외국어의 경우는 첫째 학년에 주당 1시간에서 6시간, 둘째 학년에서 주당 2시간에서는 6시간이나 된다.

2년제 고등전문학교(Fachoberschule)에서는 영어, 불어가 제 1 외국어이고, 불어, 스페인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가 제 2 외국어로, 학생들은 이중 각기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다. 제 1 외국어의 주당 시간수는 첫째 학년에 1시간 내지 6시간, 둘째 학년에 3시간 내지 5시간이며, 제 2 외국어는 첫째 학년에 3시간, 둘째 학년에 2시간 내지 5시간이다.

지금까지 독일 중등교육과정의 학교유형별 교과과정상에 나타난 외국어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훈련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학교 초급과정(Grundschule), 국민학교본과(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의 외국어 교사는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계속해서 18개월 내지 24개월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또 김나지움의 외국어 교사는 일반대학에서 4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18개월 내지 24개월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하며, 직업학교의 외국어 교사는 일반대학이나 공과대학<sup>18)</sup>에서 4년 이상의 교육과 1년 동안의 직업교육을 받고 난 다음 18개월 내지 24개월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각 학교의 외국어 교사들은 근무중에도 해당 외국어나 각 주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1년에 3주 동안의 해외연수 또는 강습을 받아야 한다. 해외연수교육은 국민학교 본과, 실업학교, 김나지움, 직업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시된다.

17) Vgl. Eurydice European Unit (ed.).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Brussel 1988, S. 23.

18) Vgl. ebd.

### Ⅲ. 일반대학과 국민교양대학의 외국어교육

독일 학제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기까지 13학년이므로, 김나지움 졸업 받은 우리나라 대학 1학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우리나라 대학에서와 같은 교양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공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대학에도 학문연구의 기초가 되거나 일반 교양에 필요한 교양과목(*das Studium generale*)이 개설되는데, 그 주류를 이루는 것이 외국어이다. 대학에서 개설하는 외국어는 고전어에서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일단 김나지움에서 개설되었던 외국어는 다 포함된다. 분류에 따라서는 개척언어(*die Erschließungssprache*)<sup>19)</sup>에 속하는 것까지도 개설된다. 외국어 과목의 수는 대학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을 경우에는 20종류 이상인 곳도 있다.

개설 외국어의 수준도 초급부터 고급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자기가 택한 전공에 필요한 외국어를 김나지움에서 이수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외국어를 새로이 배우려고 할 때에는 초급부터 시작할 수 있다. 초급은 한 학기 내에 어떤 외국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집중코스(*Intensivkurs*)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김나지움에서 이미 배운 외국어를 계속해서 더 수강하려고 할 때에는 중급이나 고급코스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대학 외국어교육의 특기할 점은 개척성 언어의 개설이다. 동유럽 여러 국가들의 언어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까지도 제공되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독일 대학의 외국어 교육과 김나지움을 졸업하기까지의 외국어 교육을 비교하면, 김나지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럽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의 언어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대학과 다음에 검토할 국민교양대학에서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국민교양대학(*Volkshochschule*)은 오랜 전통을 가진 공공교육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국민교양 대학은 통일 전 서독 지역에만 1,200개 이상이나 된다. 주로 야간에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직업에 종사하는 성인들에게 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나 일반 학문 분야, 예술 분야, 또는 일반 교양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방법으로 강의하고 있다. 또 국민교양대학은 취미생활을 위한 과목과 건강을 위한 각종 스포츠 과목, 심지어는 명상(*Meditation*), 요가(*Yoga*)까지도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교양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독일어와 외국어이다. 독일어는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와 자국어 능력을 개선하려는 <독일인을 위한 독일어>로 구분하여 강화를 개설하고 있다. 외국어의

19) 본문 <언어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 참조.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어느 학교보다도 많은 종류의 외국어를 다양한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다. Dusseldorf의 국민교양대학의 1991년도 수강편람을 보면, 23개의 외국어 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sup>20)</sup> 강좌수만도 500개 이상이나 된다. 개설 외국어의 선정기준도 실용적인 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서양고전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Dusseldorf의 국민교양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외국어를 참고로 나열해보면, 고전어로는 라틴어; 현대어로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노어, 아랍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현대 희랍어, 히브리어, 힌두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세르보크로아트어, 터키어, 헝가리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교양대학에서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유럽공동체 국가의 언어 외에 기타 세계 각국 언어들의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 외국어 강좌 수준에 따른 강의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의 그것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다. Dusseldorf의 국민교양대학의 외국어강좌 프로그램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와 비중이 가장 적고 비유럽 공동체 언어인 중국어의 강의 프로그램을 예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우선 영어는 <기초에서 국민교양대학 영어자격취득 수준까지의 코스>와 <고급영어 코스>, <특수교육 코스>,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기초코스>는 다시 <입문코스>의 1개 반과 <자격취득 수준까지의 코스> 10개 반을 두고 있으며, <고급영어 코스>는 또 <복습 코스><sup>22)</sup>, <TOEFL 코스>, <Cambridge 코스>, <직장영어 코스>, <고급실습영어 코스>로 세분되고 각 코스에는 여러 단계의 반이 있다. <특수교육코스>에는 그룹을 통한 교육과 세미나를 통한 교육이 있다.

중국어는 회화, 작문, 독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4개의 <소통 코스 Kommunikationskurs>와 1개의 <고급 코스>가 있다. 또 영어는 각 코스마다 여러개의 강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200여개의 강좌가 있는 반면 중국어는 코스별로 한 강좌씩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5개의 강좌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교육이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나라들의 언어와 고전어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일반대학과 국민교양대학에서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언어를 모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교육의 목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학문연구의 토대와 유럽공동체 국가들 간의 긴밀한 이해 증진에 두고 있는 반면, 일반대학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외국어교육 목표 외에 개척적인 목표를 추가하여 보다 광범한 지역의 언어를 교육하고 있다. 끝으로 국민교양대학에서는 국민들의 직업활동을 돕고 교양을 높이는 데에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

20) Vgl. *Volkshochschule Düsseldorf*, Düsseldorf: Stern-Verlag 1991, S. 120.

21) Vgl. ebd., S. 144.

22) <복습코스>는 독일어로는 <Auffrischkurs>라고 하며 과거 배웠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코스를 말함.

으로 한가지 뚜렷한 것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 나라 언어의 습득이 필요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만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관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IV. 언어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

학교 언어교육에서 어떤 외국어를 선택하여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언어의 구사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생각하게 된다. 물론 유용성에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외국어 교육은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부정적인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가 언어를 통하여 흘러들어올 수 있다. 특히 언어교육이 어떤 한 나라의 언어에 치우칠 경우에는 자국어의 순수성을 파괴함은 물론 전통적인 고유 문화와 정서마저 파괴할 위험이 있다.

영어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소통언어이다. 이 점은 유럽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독일은 유럽공동체의 어느 나라보다도 영어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일어에는 영어 단어와 영어식 표현이 침투되어 있다. Broder Carstensen은 독일 최대 시사 주간지 <Der Spiegel>의 독일어가 어느 외래어보다도 영어에서 온 말과 영어식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 저널리즘에 영어식 문체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23)</sup>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독일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외국어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어떤 특정 외국어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때 생기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어떤 합리적인 언어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국어교육의 불균형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0년 초에 학자, 작가, 문교부 소속 관리 및 문화계 인사들이 한 그룹이 되어 독일연방공화국 외국어교육에 관한 건의서를 내어놓았다. <흙부르크 추천서><sup>24)</sup>라고 명명한 이 건의서에서 그들은 외국어를 구체적 개별 언어인 영어, 불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목적에 따라서 교제언어(Begegnungssprache), 기초언어(Fundamentalsprache), 소통언어(Verkehrssprache), 개척언어(Erschließungssprache)로 나누고 있다.

교제언어란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서 주로 놀이식으로 습득하게 되는 언어를 말한다. 따라서 교제언어의 교육목적 또는 교육의 필요성은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 국가 가운데 2개 이상의

23) Vgl. B. Carstensen: *Spiegel-Wörter/Spiegel-Worte*, München: Max Hueber 1971. S. 58f.

24)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18 (주 12).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들이나 국경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웃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위 유럽학교(Europaschule)<sup>25)</sup>라는 것을 설립하여, 유럽공동체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서로 다른 언어—주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다는 전제하에, 놀이식과 함께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실시된다. 독일에서 교제 언어 교육의 또 다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있다. 즉 독일에는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구서독 지역에만도 백만명 이상의 터키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언어도 역시 이웃나라 언어나 마찬가지이다. 또 이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자연적으로 독일 어린이들과 어울려 서로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간단한 상대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교육의 목적은,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국적과 다른 문화를 가진 어린이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이질성체험(Fremdheitserfahrung)을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습득한 언어를 독일 학교제도의 형편상 상급학년에서 계속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인 노력이 전혀 헛된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철저하게 배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민교양대학이 다시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민교양대학에서는 그만큼 개설 외국어 강좌가 다양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강좌를 더 개설할 수도 있다.

〈홈부르크 추천서〉에서 기초언어(Fundamentalsprache)라고 명명한 언어는 5학년부턴 배우는 제 1 외국어를 말한다. 이 명칭은 기본적 사회관습으로서의 문자와 그 사용규칙이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집단의 사회적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근원적 연관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내는가를 기초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추천서에는 어떤 언어가 기초언어로 가장 적합하며 제 1 외국어로서 가르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영어를 제 1 외국어로 교육하여온 독일 외국어교육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Harald Weinrich는 《기초 언어로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영향력이 큰 문화를 지닌 언어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문학작품과 기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오랫동안 읽고 배우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가치있게 생각되어야 한다.》<sup>26)</sup>고 하고, 이러한 언어로서 그는 불어와 라틴어를 권하고 있다. 즉 제 1 외국어로서의 기초언어는 오랜 전통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언어를 말하며, 그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많은 정신적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홈부르크 추천서〉에서 제 2 외국어로 규정한 언어는 소통언어(Verkehrssprache)이다. 소

25) 유럽공동체 각 기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로, 여러 나라 언어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는 Luxemburg, Bergen(네덜란드), Brussel; Mol(벨기에), Karlsruhe(독일) 등에 있다.

26) Vgl.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S. 320.

통언어란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된 일종의 국제어(Weltsprache)를 의미한다. 이 언어는 두 대화자가 자기들의 모국어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통언어는 실용적 목표설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 소통언어가 전문용어와 학술언어에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욱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소통언어를 정하는 문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전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영어가 실용적이며 적합하겠지만,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점은 영어가 기초언어로도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언어가 기초언어임과 동시에 소통언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외국어교육이 실리와 실용적인 면에만 치우쳐 본래 외국어교육이 갖는 다양한 목표가 뒷전에 밀려나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사용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흠부르크 추천서>가 마지막으로 추천한 언어는 개척언어(Erschließungssprache)이다. 개척언어란 주로 발견적 목적(das heuristische Ziel)으로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 접하여 이를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배우는 언어이다. 그런데 개척언어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시간적 의미로 본 개척언어는, 지금은 이미 사어가 된 서양이나 동양의 고전어를 말하며, 공간적 의미로 본 개척언어는 아랍어나 중국어, 일본어, 또는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 언어와 같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독일에서 볼 때는 낯선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 그러나 이 추천서가 개척언어로서 특히 권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배웠다가 지금은 거의 잊은 교제언어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습교육은 국민교양대학이 담당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하는 개척언어는 중등학교 상급반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학 입학정원 제한에 따른 압박으로 이러한 다양한 외국어교육이 어렵다면 대학에서라도 개척언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H. Weinrich는 말하고 있다.<sup>27)</sup>

<흠부르크 추천서>가 독일 언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어 종류의 다양성에 있어서 현재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언어교육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추천서는 언어를 교육목적에 따라서 분류하여, 외국어 교육의 신축성을 기하고, 외국어 교육의 불균형을 시정하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 언어교육정책의 특징을 종합하면, 첫째는 배우는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는 중등학교, 대학, 성인학교 언어교육의 연계성 있고 유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셋째는 자기 나라 언어인 독일어를 널리 보급시키기 보다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워서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7) Vgl. ebd., S. 321f.

## V. 맺 음 말

지금까지 독일 외국어교육의 실태를 중등교육과정과 일반대학 및 국민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다. 중등교육과정의 외국어 교육정책은 학문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럽공동체나 회원들간의 이해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일반대학에서는 위 두가지 목적외에 미지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한 개척언어(Erschließungssprache)들을 첨가하고 있으며, 국민교양대학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의 필요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폭넓게 개설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언어교육정책의 방향은 자국어를 널리 보급시키는 데에 두지 않고 가급적 국민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들을 보급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언급할 것은, 독일은 언어교육에서 외국어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영어편중교육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고찰은 서독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통일후에도 이러한 외국어교육정책의 방향은 변화가 없으리라고 본다.

## LITERATUR

- H. Weinrich: *Wege der Sprachkultur*, München 1988.
- H. Haarmann: *Grundfragen der Sprachregelung in den 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Hamburg 1983 (=Schriftenreihe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11)
- Kultusministerium Nordrhein-Westfalen(Hg.): *Die Schulformen in der Sekundarstufe I*, Bochum 1990.
- Kultusministerium Nordrhein-Westfalen (Hg.): *Die Schulformen in der Sekundarstufe II*, Bochum 1990.
- Chr. Fuhr: *Schulen und Hochschul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ter Nationes, Bonn 1988.
- Euridice European Unit (ed.): *The Teaching of Languages in the European Community*, Brussel 1988.
- Volkshochschule Düsseldorf*, Düsseldorf: Stern-Verlag 1991.
- B. Carstenson: *Spiegel-Wörter/Spiegel-Worte*, München: Max Hueber 1971.



## **Policie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The aim of this group study is to give a picture of the situation regard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modern foreign languages i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Although educational systems in the Community countries vary considerably and this variety is the result of historic and cultural factors, educational policy makers in the European Community have long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s well as the value of information concerning innovations and changes in other Member countries. The Community countries agreed to promote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reby achieving cultural “harmony” among themselves. They even agreed to set up an information network, known as EURYDICE, in order to increase and improve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policy. On the whole, the three countries strongly supported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on the premises as follows: 1) the experience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makes its unique contribution to allowing students to explore the life-style and culture of other lands; 2) a foreign language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learning generally; 3) learning a foreign language fosters sympathetic but not un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people of the foreign country, helping students to appreciate their culture; 4) effective learning language provides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skills of communication.